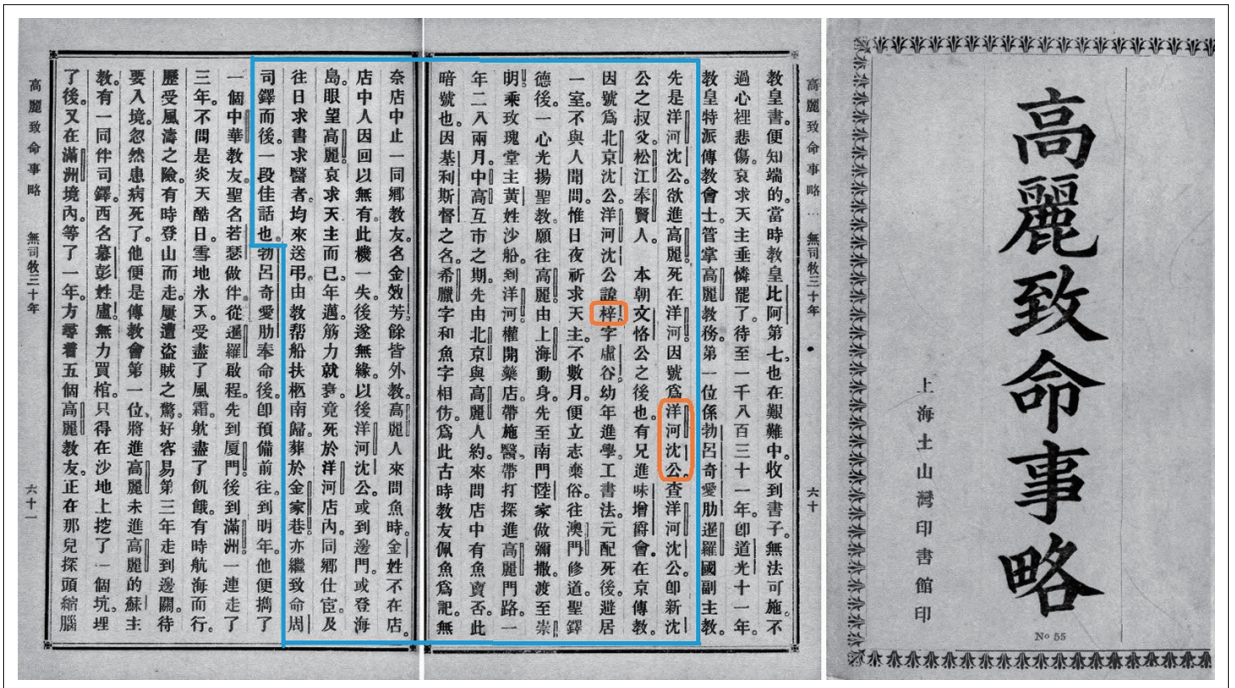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부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1817년 조선 전교를 꿈꿨던 중국인 선교사제, 심 신부와 왕 신부

1801년(신유)의 천주교 박해 이후 조선 천주교회는 한 명의 선교사제도 없이 신자들만의 신앙공동체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1811년(신미) 이후 조선교회는 지속적으로 북경교구에 대표를 보내 선교사제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조선 신자들이 보낸 서한을 통해 조선교회의 재건을 확인한 북경교구와 로마 교황청에서도 선교사제를 조선에 입국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신자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선교의 확산을 위해 1831년 조선대목구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4년 여항덕(유방제) 신부가 입국하고 1836년 파리외방전교회의 모방 신부가 입국함으로써 사제-신부로 구성되는 온전한 교회체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1] 조선 파견 선교사제 심재 신부 관련 내용 (『고려치명사략』)

1834년 이전의 선교사제 파견 시도 중 가장 안타까운 일은 1817년의 실패일 것입니다. 1817년 당시 북경

교구장인 수자 사라이바(Souza-Saraiva) 주교는 박해 때문에 북경에 가지 못하고 마카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교는 교황청의 지시와 조선 신자들의 요청을 고려하여, 1817년 초에 남경 지방 출신의 플로리아노(Florianus Xin Vellozo) 신부[43세]와 요한(Joannes Vam) 신부[29세]를 조선으로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1817년 1월 4일 남경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으나 조선 입국에는 실패하였습니다. 플로리아노 신부는 국경지대에서 병사했고, 요한 신부는 안내자가 없는 상황에서 조선 입국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남경 지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요한 신부는 남경 지방에서 사목활동을 하다가 병에 걸려 조선 입국의 기회는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 신자들도 알고 있었는데, 1825년 교황에게 보낸 조선 신자들의 서한에도 간략하게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최석우, 2012, 『조선에서의 첫 대목구 설정과 가톨릭교의 기원 1592~1837』, 한국교회사연구소, 122~123쪽 참조]



[그림2] 북경교구장 수자 사라이바 주교의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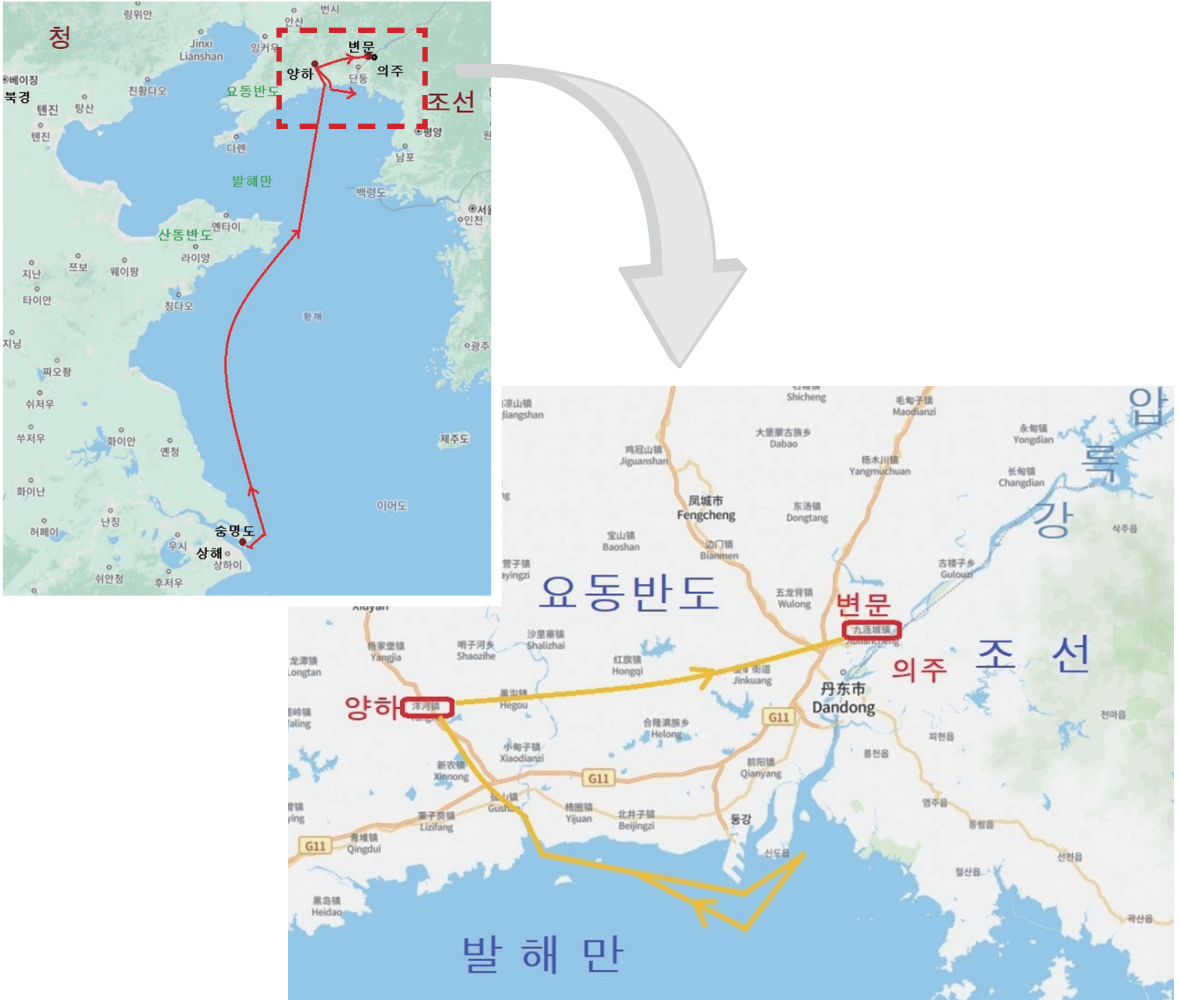
고(故) 최석우 신부의 저서에 정리된 내용 이외에 1817년 선교사제 파견 시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자는 다른 자료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1900년에 간행된 『고려치명사략(高麗致命史略)』과 『고려주증(高麗主證)』은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1874년 원본)를 바탕으로 한국천주교사(순교사)를 서술한 책입니다.[이승희, 2019, ‘20世紀 初 동아시아 教會史 쓰기의 一様相 : 『高麗致命史略』과 『高麗主證』을 中心으로’ 발표] 그중 『고려치명사략』에는 1817년 당시 파견되었던 플로리아노 신(Xin) 신부라고 추정되는 심재(沈粹) 신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플로리아노 신 = 심재 신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동 양하(洋河)에서 조선 입국을 시도하다가 선종한 심재(沈粹) 신부

『고려치명사략』의 저자 심척관(沈則寬) 신부는 제10장 ‘고려무사목30년(高麗無司牧三十年, 조선에 사제가 없었던 30년)’에서 1831년 조선대목구 설정 이전에 조선 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신부를 언급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심재(沈粹)로 송강(松江) 봉현(奉賢)[현재 상해시 봉현구]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도 라자로회 소속 사제로서 북경에서 활동했습니다. 심재는 원래 학문에 매진했던 사람인데 부인과 사별한 후 사람들을 피해 방에 들어가 오로지 천주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수개월 후 세속을 떠나 마카오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한 후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조선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심재 신부는 상해(上海)에서 출발하여 근처 송명도(崇明島)에서 배를 타고 요동으로 건너가 양하(洋河)[현재 요녕성 안산시 수암만족자치현 양하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임시로 약국을 열어 의술을 베풀면서 동시에 조선 입국로를 찾았습니다. 먼저 북경(교구)을 통해 조선 신자 대표와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약속했는데, 조선과의 국경 지역인 책문(柵門, 변문)에서 시장(책문후시[柵門後市])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어느 가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로 알아볼 암호로는 ‘물고기가 있느냐?’로 정했는데, 물고기는 초대 그리스도교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

며 구세자'란 의미의 그리스어 구절의 첫 글자를 따면 '물고기'(ΙΧΘΥΣ, 익투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조선 신자가 미리 정한 가게로 와서 물고기가 있냐고 물어봤지만, 때마침 중국인 연락원 [상해 출신 김효방(金效芳)]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비신자였던 다른 점원이 '물고기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 신자는 그대로 돌아갔고, 이 한 번의 기회를 잃어버림으로써 조선 입국의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지도] 1817년 선교사제 조선 입국 시도

심재 신부는 이후 직접 변문(邊門)[현재 요녕성 단둥시에 속한 봉성시 변문진]에도 가보고, 또 배를 타고 바다[압록강과 발해만이 만나는 지점으로 추정]의 섬에도 나가보았지만 멀리 조선 땅만 바라볼 뿐 입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교사제로서는 많은 나이에다가 심신이 지친 심재 신부는 결국 양하 땅에서 사망했습니다. 신자들의 배려로 그의 시신은 남쪽으로 돌아가 김가항(金家巷, 현재 상해시 포동신구)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고려치명사략』(1929년 제3판, 60~61쪽)

위의 『고려치명사략』 기록에는 정확한 연도가 나오지 않지만, 내용상 심재 신부가 수자 사라이바 주교가 파견한 두 명의 신부 중 플로리아노 신(Xin) 신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왕(Vam)[당시 중국어

표기에서 V는 W로, m은 ng로 발음되기도 한다. 신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플로리아노 심 신부와 함께 조선 입국을 위해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1817년 조선 입국 시도는 거의 성공할 뻔했지만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신자들의 사제 파견 요청은 끊이지 않았고, 조선대목구의 설정과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들의 입국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복음 전파를 위해 주문모 신부의 뒤를 이어 조선으로 오고자 했던 심 신부와 왕 신부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재 플로리아노 신부에 대한 기록은 당시 북경교구장 수자 사라이바 주교와 북경교구 총대리 리베이로 누네스(Ribeiro-Nunes) 신부의 서한에도 남아 있으므로, 『고려치명사략』의 내용과 비교하여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하우현 성가대 기념 사진

(1956년 11월 12일, 하우현본당 제공)

사진 가운데 노기남(바오로) 주교, 왼쪽 황정수(요한) 신부, 오른쪽 구천우(요셉) 신부와 함께 찍은 하우현 성가대의 기념사진이다. 하우현성당은 1954년 안양성당(현 중앙성당) 신설로 공소가 되었고, 하우현 8대 주임(1953~1954) 구천우 신부는 안양성당 초대 주임 신부로 부임했다. 황정수 신부는 하우현 7대 주임(1943~1951)이었고, 1956년 당시 서울대교구 삼각지성당 주임신부였다.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0호 원고 모집 (마감 연장)

- 투고 마감일(연장) : 2022년 2월 10일 / 분량 : 200자 원고지 200매 안팎
- 보내실 곳 : 연구소 홈페이지(casky.or.kr)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사학』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III'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